국난극복 발원, 800년 시간 넘어 '현현'
〈顯現〉

일반 공개한 팔만대장경 참관기


해인사 팔만대장경이 수장된 법보전 내부전경. 스님들도 들어가기 어려웠던 이곳이 사전예약을 통해 일반에 공개되고 있다.

"석가모니불, 석가모니불, 석가모니불…."

가야산 해인사의 온 도량에 석가모니불 정근이 울려 퍼진다. 해인사 사부대중이 간절한 마음을 담아 정근을 하며 대적광전을 나와 팔만대장경이 봉안되어 있는 법보전을 향해 한 걸음씩 성스러운 발걸음을 내딛는다. 평소라면 대적광전 안에서 집전될 법회가 해인사를 거닐며 법음을 퍼트린다. 지난 6월 10일은 해인사 팔만대장경을 모든 국민들에게 개방하고 내부를 순례할 수 있는 사전예약 탐방제의 시작을 부처님께 알리는 고불법회가 열린 날이다.

그동안 팔만대장경은 해인사의 가장 높은 곳에 마련된 수다라장과 법보전에 오랜 숨결을 간직한 채 있었다. 그러나 해인사에서는 코로나19를 비롯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과 조상님들의 나라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법보전의 내부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단순히 닫혀있던 건물 하나를 공개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법보전과 팔만대장경이 담고 있는 역사와 발원을 알게 되면 그 감동이 새롭게 다가올 것이다.

팔만대장경은 고려 고종 때(1236년) 몽고군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모든 국민들의 발원을 담아 만들어진 것이다. 불교경전을 인쇄물로 제작한다는 이상의 의미로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발원하고, 그것을 후대에까지 전하기 위해 무려 16년이라는 세월동안 만들어진 역사의 한 페이지이다. 그리고 그 팔만대장경을 봉안하여 길이 전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 해인사의 수다라장과 법보전이다.

국민의 염원을 담아 만들어진 소중한 경판이지만, 그 양이 무려 8만 1258장에 이르고 목재이기에 보관 자체도 쉽지 않은 문제였다. 이에 적정 습도와 바람, 온도 등이 최적화된 곳을 고심하다가 정해진 곳이 바로 해인사이다. 그리하여 해인사의 가장 높은 곳에 수다라장과 법보전을 지어 강화도에서부터 다시 모든 국민들이 경판을 짊어지고 옮겨와 봉안한 것이 2021년 6월 19일부터 사전예약 탐방제로 공개하는 해인사 팔만대장경이다.

지금 법보전을 공개하는 이유도 고려 당시에 나라의 어려움을 한 마음으로 극복하려던 국민들의 발원이 다시금 우리의 가슴 속에 전해지고, 그 깊은 울림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상이 본래자리로 되돌아가게 하기 위한 간절한 발원인 것이다.

필자에게 있어 이번 사전예약 탐방제는 남다르게 다가온다. 출가를 결심하고 꼭 가고자 했던 곳이 해인사였다. 어느 사찰보다 엄격하고 출가자의 위의가 당당한 곳이기에 주저없이 해인사를 선택해 행자생활을 하게 되었다. 처음 온 해인사는 생각대로 수행과 신심이 올곧게 서있는 도량이었다. 그중에서도 팔만대장경에 대한 자부심은 대단했다. 필자는 밥을 짓는 공양주를 했는데 법보전에 올라가는 사시 마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직접 가지고 올라가 부처님 전에 올릴 만큼 막 출가한 행자조차도 해인사와 팔만대장경에 대한 뜨거운 마음은 남달랐다.

그리고 사미가 되어 해인사승가대학에 입방한 뒤에도 줄곧 법보전 청소를 담당했었다. 당시의 법보전은 아직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 전이라서 출입이 그나마 용이했었다. 특히 청소하는 날에는 팔만대장경을 지키시는 장주 스님에게 열쇠를 받아 안에 들어가 바닥의 먼지도 쓸고 벌레집 등을 털어내며 청소를 하였다.

1학년(치문반) 때는 법보전의 문지방을 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떨렸다. 혹시라도 청소를 하다 실수라도 할까 조심조심하였고 곳곳의 모습과 색채, 공기마저도 놓치지 않고 담아두려 했다. 물론 그러다보면 청소를 소홀히 해서 장주 스님에게 호되게 혼난 적도 많았다. 그래도 사이사이 보이는 경판의 한 글자 한 글자의 선명함과 획의 모양은 천 년 가까운 시간을 넘어 사미의 여린 가슴에 깊은 감동을 전해주었다. 그리고 청소를 마치고 다시금 문을 닫고 자물쇠를 채우고 나면 그 날 하루는 마치 역사의 수호자가 된 듯한 뿌듯함에 도반 스님들에게 자랑도 하고 즐거움에 빠져 시간을 보냈다.

그렇게 해인사승가대학을 졸업하고 8년간 유학을 떠난 뒤 다시 해인사에 돌아와 가장 먼저 인사드린 곳도 법보전이었다. 다시 돌아온 법보전은 그동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격한 경비 속에서 지켜지고 있었다. 예전만큼 가깝게 다가설 수는 없었으나, 그 자리에서 한결같이 반겨주고 있는 모습에 다시금 본래자리로 돌아왔다는 따스한 안도감을 받았다. 많은 선후배 스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해인사에서 정진하셨던 스님들이라면 누구라도 강원생활과 팔만대장경에 엮인 이야기로 한참 "라떼는 말이야"를 찾으실 거다. 필자 역시도 유학을 가기 직전 법보전에서 삼천배를 하고 굳은 마음을 다졌다가 다시 해인사로 돌아와 맨 먼저 법보전을 찾아 부처님께 감사인사를 드렸던 기억이 생생하다. 돌이켜보면 행자시절 내가 해인사를 선택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해인사가 나를 받아주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곳은 나에게 있어 출가 그 자체를 상징하는 곳이다.

6월 19일부터 사전 예약 통해
팔만대장경 수장 법보전 공개
스님들도 쉽게 들어가지 못해
학인시절 청소시만 입장 가능
선조 국난극복 발원 전해지길

필자의 지난 시절 이야기와 같이 지금도 해인사에는 많은 스님들이 모여 수행정진을 하고 있다. 특히 해인사승가대학은 전통승가교육의 중심역할을 하며 현 시대에 대한 불교적 고민과 전통교학의 활용에 대해 다양한 시도를 끊임없이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지난 동안거에는 방장스님과 주지스님을 비롯한 대중스님들의 배려로 〈대승기신론소기회본(大乘起信論疏記會本)〉을 학인 스님들이 직접 인경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인경(印經)이란, 표현 그대로 경전을 새긴 목판을 인쇄하여 책의 형태로 만드는 작업을 말한다. 그러나 인경이 경판에 먹을 입혀 종이를 놓고 문질러 인쇄하는 단순한 과정인 듯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 상당한 숙련도가 요구되는 작업이다. 특히 500년 가까이 된 나무경판을 직접 인경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섬세한 작업인지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그렇기에 인경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받고 철저히 안전을 확인한 뒤 굳게 닫혀 있던 법보전 안에 발을 디딜 수 있었다. 수차례 교육을 받고 들어선 법보전이지만 순례를 위한 것이 아닌 경전을 꺼내 인경한다는 생각에 전혀 다른 긴장감과 경외심이 느껴졌다. 법보전의 경판은 총 4단으로 이루어진 서고에 보관 중인데, 우리가 사용할 경판은 가장 높은 4층에 있었다. 오래된 서고를 생각해 다소 체중이 적은 스님들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으나 막상 올라가니 그 높이는 상당했다. 게다가 세월의 흔적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경판이었기에 한 장만 꺼내도 500년 세월의 먼지도 함께 나와 우리를 당혹스럽게 했다. 마치 수호신장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경판을 지키려는 모습과도 같이 느껴졌다.

조심스레 경판 한 장을 꺼내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켜켜이 쌓인 먼지를 털어낸 뒤 고운 한지로 정성스레 감싼 뒤 경판보관용 상자에 담아 세상 밖으로 꺼내었다. 동안거 한 겨울에 작업을 하다 보니 판전 내부의 공기가 가슴을 시리게 할 정도로 차가웠다. 게다가 판전 내부는 공기역학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통풍이 매우 잘 되서 가야산 동장군의 기운을 그대로 맞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한참을 걸려 기회본의 모든 경판을 보존원으로 옮겨와 재확인과 검열을 마치고 전용고에 보관하였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작업인 인경을 배워야 했다. 인경은 종이 한 장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온전히 담길 수 있도록 완벽하게 인쇄해야 하는 가장 어렵고 중요한 작업이다. 그래서 최고의 인경전문가이신 월인 변영재 거사를 초청해 일주일에 걸쳐 특강과 습의를 받아 전체 학인 중 7명을 선발해 인경팀을 만들었다. 최종적으로 선발된 우수한 스님들이었어도 다시 인조경판으로 3일간 인경연습을 마친 뒤 비로소 기회본 경판 앞에 앉을 수 있었다.

인경을 수 백 장 연습했어도 실제 경판을 마주하니 그 무게에 압도되어 한참을 긴장하였으나, 이번 인경을 통해 불법을 바르게 배우고 많은 이들에게 회향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신심을 가다듬고 한 장 한 장 인경을 해나갔다. 두 권 분량의 기회본은 하루 이틀에 마칠 수 있는 작업이 아니었기에 며칠 간 늦은 시간까지 인경작업에만 몰두해야 했다. 일주일 가깝게 7명의 학인 스님들이 신심을 다해 인경을 하였고 마침내 경판으로 존재하던 기회본이 책의 형태를 갖추고 세상에 모습을 보였다. 힘들고 긴 시간이었으나 인경된 두 권을 보니 모든 학인스님은 한결같이 피로를 잊고 환희심으로 가득차게 되었다.

특히 코로나19로 모두가 한참 지쳐있었고, 해인사도 산문까지 폐쇄하며 방역에 힘쓰던 시기였기에 대승기신론이 담고 있는 가르침이 인경을 통해 더 깊이 다가왔다. 대승기신론은 일심(一心)과 이문(二門)의 가르침을 설한다. 부처님의 절대평등의 일심과 그것을 진여문(眞如門)과 생멸문(生滅門)으로 나누어 설명하지만, 진여라는 깨달음은 생멸이라는 번뇌가 있기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즉 깨달음이란 특정 누군가만의 전유물이 아닌 중생, 바로 우리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바른 생각으로 눈뜰 때 바로 부처가 되고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진여문와 생멸문이 둘이 아니고, 번뇌가 바로 깨달음이며, 중생이 바로 부처인 것이다. 이처럼 기회본을 인경한다는 것이 해인사 스님들만을 위한 것이 아닌, 그를 통해 힘들어하는 우리 모두에게 마음의 위안을 찾을 수 있는 가르침을 알려주고, 다함께 평안한 일상으로 되돌아가기 위한 불법의 뿌리를 심은 것이다.

그리고 2021년 6월 19일부터 시작된 팔만대장경 사전예약 탐방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든 국민들과 함께 느끼고, 그것을 통해 지금 우리의 삶을 다시금 일으키려는 동체대비의 실천인 것이다. 법보전에는 '원각도량하처 현금생사즉시(圓覺道場何處 現今生死卽時)'라는 주련이 있다. 깨달음이라는 것이 어딘가에 막연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의 삶을 투철하게 바라볼 때 펼쳐지는 것이라는 의미이다.

팔만대장경을 조성하며 국난극복을 바라던 고려 국민들의 발원이 다시금 숨결을 일으켜 2021년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모든 이들의 가슴에 부처님의 자비가 전해져 나무그늘과 같은 의지처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법보전의 문을 열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법장 스님(해인사 승가대학 학감)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 民衆醫術 의술

신간

제 1편 치병편
제 2편 치료술
제 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 4편 수행편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 당뇨, 고혈압에서 간단하게 벗어 나는 법
- 척추, 디스크, 협착증 및 각종질병에서 벗어나 죽을때까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자세히 수록해 놓았다.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민중의술의 특징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사찰신도 관리 프로그램

동종업계 최저가격
"번거로운 설치없이 이용가입 후 바로 사용 가능"
"이용 사찰의 프로그램 만족도 우수"

최초 가입시 1개월 무료 사용
월사용료 기본 19,800원
설치비 · 세팅비 전액무료



❶ 연등표 출력 ❷ 인등표 출력 ❸ 위패출력
❹ 문자발송 ❺ 기부금 영수증 ❻ 사주팔자

부가서비스
- 원격지원 | 해당 사찰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실시간 프로그램 설명 및 오류 수정
- 적립포인트 제도 시행 | 접속률, 이용후기작성, 사용료 3% 등 최대 22,000P 제공
- 축원문출력, 삼재관리, 회계관리, 우편라벨 출력, 신도생일 및 신도영가 기일 자동 표시
- 물품관리, 전국 날씨정보, 메모장, 일정관리, 등록된 모든 자료 파일 다운로드 가능

GmSoft GM since 2015 SOFT
지엠소프트
대표전화 070-7633-2525, 010-8588-2525
상담문의 평일 09:30 ~ 17: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www.gmst.co.kr

복을 가져다 주는 행운의 말발굽

물고기가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듯이 사람도 재운이 있어야 돈도 벌고 명예도 얻습니다. 그러기에 금전운을 키워야 합니다. 노력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조금만 도와주는 것이 있었으면 할 때 말발굽을 소장해 보세요. 말(馬)은 원래 서양 속담에 "말굽을 발견하면 행운이 온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사람을 밟고 지나가지 않는 습성이 있어, 예로부터 액운을 막고 복을 가져다주는 상징물로 여겨져 왔습니다. 없던 복도 굴러 들어오고, 재산을 모으고, 장애물을 쉽게 넘어갑니다. (모든 일이 술술 뜻대로 이루어지는 데 도움을 줍니다) 들어온 복을 지켜주며, 선물용으로도 좋고 장식용으로도 좋습니다.


30만원 사이즈 54X47X5cm
*모든 액자틀은 원목을 사용합니다.


20만원 사이즈 49X34X5cm


11만원 사이즈 35X35X5cm

● 초진재보란?
재물에 욕심을 부리면 재물이 피해 가지만
재물을 사랑하고 초대하면 재물이 저절로 들어온단 뜻입니다.
*말(馬)이 실제로 사용한 굽이여서 모양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서울 은평구 가좌로 248 유튜브 "유명표구사" 검색
유명액자만물 Tel. 010-3308-6983
※ 전국택배 됩니다.

기업은행 041-002694-03-016 이종부